

## 교토환경회의

### 온실가스감축협약

지난 12월 1일부터 일본 교토(京都)에 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자국총회 는 11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미국 등 38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고 개도국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으로서 사상 처음이었다.

선진국들은 당초 개도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문제를 의정서에 포함하려 했으나 중국 등 G77 개도국들이 강력히 반발, 해당 항목인 의정서 10조(개도국 자발적 참여 조항)를 아예 삭제했다.

일정을 하루 넘긴 이날 극적으로 타결 된 교토의정서는 미국 7% 감축을 비롯, 일본 6%, 유럽연합 8% 등 38개국이 평 균 5.2%, 국가별로는 -8% ~ +10%까 지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율을 차등적용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 미국의 경우 90년 대비 7% 감축을

약속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이 경우 2012년까지 5억5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보다 30% 나 줄이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석탄, 석 유, 천연가스를 덜 태우는 방법으로 달성 될 수 있다.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발 산하지만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의 에너지 원이다. 따라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 배출권거래제

회의가 결렬될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미국 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배출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 에 나머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에서 발전소들 간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달러가 부족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대규모의 공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쿼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공장시설이 낡고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 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보호론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는 본래 목적이 국가간 상 거래로 타락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남북문제 라고 비판했다.

수 있다.

의정서는 또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종류를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수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종으로 정하고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인정했다.

## 우리나라

우리 나라는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이 삭제되어 일단 부담은 덜었지만 내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제4차 총회

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의무감축 대상국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5년 기준 353t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1.6%를 차지해 배출량이 1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추세만 놓고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연도인 90년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0%나 증가했다. 감축은 커녕 더 이상 증가를 막기도 벅찬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타협안을 성립시켜도 그해에 32%의 에너지 사용을 감축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충격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 감축은 더욱 가혹한 시련이다. 에너지 감축은 산업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작성한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주위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농도는 대체로 2070년에 현재

###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세계 배출량 — 22,038t


1위	미 국	5,228t(23.7%)
2위	중 국	3,006t(13.6%)
3위	러시아	1,548t (7.0%)
4위	일 본	1,152t (5.3%)
5위	독 일	884t (4.0%)
6위	인 도	803t (4.0%)
7위	영 국	565t (2.6%)
8위	캐나다	471t (2.1%)
9위	우크라이나	431t (2.0%)
10위	이탈리아	424t (1.9%)
11위	프랑스	362t (1.6%)
12위	한 국	353t (1.6%)

보다 2배로 높아지고 모든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빠르면 2030년에는 2배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농도가 2배로 늘어나면 한반도 온도는 1~4°C 범위 내에서 상승하고 지역별로는 북쪽지방과 동해안의 기후변화가 중부나 서해안보다 심하고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반도의 온도가 현재보다 최소 2°C 상승할 경우 식물재배기간이 최고 30일 이상 연장되고, 과도한 고온조건 등으로 인해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등 온대과수는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북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냉수대가 끊겨진다면 명태와 대구 같은 냉수 어종들은 한반도 주변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반면 공치와 정어리 등의 온수성 어류가 근해에 몰려들어 번식이 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 나라 쌀 생산량은 광주를 포함한 호남 논농사지역에서는 30%, 수원지역에서는 40%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 알 림

-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립공원문화」에 여러분의 수필을 소개해 주십시오.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분량의 원고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실어드리겠습니다.  
독자란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 ☞ 보낼 곳

전자우편 : 천리안 NPKA2420  
하이텔 NPKA2420

FAX : 912-4243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1 국립공원협회